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의체 사업 현황 논의

15일 농촌진흥청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마르코 치카스 소사(Marco Chicas Sosa) 주한 과테말라대사를 만나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벼 재배기술의 자동화 노동력 절감 효과 있다?

농진청, 오늘 김제 디지털농업 현장 실증단지서 연시회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오늘 전북 김제의 벼 디지털농업 현장 실증단지를 방문해 자동화·지능화 기술의 들녘별 공동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안정생산 가능성을 확인한다.

허 청장은 벼 디지털농업 현장실증 현황을 파악한 후 자율주행 이앙(모내기), 자동물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연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어 드론 활용 씨뿌림(파종) 동영상과 전시된 기기도 둘러볼 계획이다.

직진 자율주행 이앙기술은 기존 2명이 담당하던 모내기 작업을 1명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번기 모내기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직진 구간 이앙 후 편리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스마트 턴 기능이 추가돼 선회 구간에서 비숙련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자율주행 이양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직진뿐만 아니라 선회 구간에서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물꼬 시스템은 영상 또는 감지기(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논에 나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물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인이 모바일 웹에서 자동물꼬 카메라를 통해 논물 조절, 벼 생육상황, 물길(수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편리하게 물관리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술과 무인기(드론) 활용 벼 파종 기술을 고도화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디지털농업기술을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벼 수량을 예측하는 작물모형 활용 기술은 벼 생육 정보를 활용하고 이상 기상 요인을 반영해 벼 수확기 생산량을 추정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활용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 벼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생산량과 비교해 약 3% 내외의 오차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아울러 드론 활용 벼 파종기술과 관련, 기존 원판 회전식 살포기를 개선한 수직 강하 방식의 장치를 개발해 균일하게 파종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시험 중이다.

허 청장은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은 갈수록 부족하고 이상기상으로 벼 수확량은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동화·지능화된 디지털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벼 디지털농업기술을 도입, 적용하고 있는 김제시 강세일 농가는 "자동 물관리로 벼농사가 더욱 편리해지고, 자율주행 이앙으로 농번기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정읍시, 글로벌 인재 양성 '맞손'

연수원 건립 협약 체결
총 예산 413억원 투입
일일 교육인원 200명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상호 노력

15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김용진 공단 이사장, 유진섭 정읍시장,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정읍시(시장 유진섭),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15일 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국민연금 연수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오는 2025년 정읍시에 준공 예정인 '국민연금 연수원'(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일원)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원은 총 예산 413억원, 연면적 1만㎡, 일일 교육인원 200명 이상의 규모로 건립된다.

이들 기관들은 ▲연수원 건립 부지확보와 관련된 장애 요인 해결 ▲연수원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연수원 건립 후 구내식당 식자재를 지역 농축산물로 구매토록 하고, 연수원 직원 중 일부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연수원 부지 정비 및 매각을 담당하며, 연수원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연금 연수원이 원활하게 건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연수원을 미래변화에 대처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힐링과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1989년 9월 18일 설립, 109개의 지사와 7,200여 명의 임직원으로 조직돼 있으며 기금 적립액은 무려 834조를 보유한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정읍시는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을 비롯해 JB금융그룹 연수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등 연수시설을 연이어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연수원 메카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정읍=김대환기자

서부산림청, 안전관리 협약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주준규)은 15일 전북지역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사고 및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임업분야 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안전보건공단(4층 교육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고광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원장 강석주) 등 3개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임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3개 기관은 산림사업이 많은 전북지역의 임업분야 사고재해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을 고민, 이제는 간과할 수 없어 임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협약으로 서부산림청은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벌목 및 임도·사방 등 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공단은 임업분야 재해사례 전파 및 산림사업의 위험성평가를 컨설팅하며, 훈련원은 교육장 제공 및 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5일 라한호텔에서 '2021년 전북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전북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코로나19 이겨내자" 기업에 희망 전파
성동권 올포랜드 의장 · 박예나 육육걸즈 대표
각각 석탑산업훈장 · 대통령상 수상받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는 15일 라한호텔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2021년 전북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를 중소기업의 저력으로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에게 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및 장·차관급 표창 등 총 42점을 수여했다.

올해 정부포상 중 석탑산업훈장은 국토정보서비스 데이터 개발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올포랜드의 성동권 의장이 수상했다. 또한 참바다영어조합법인 김종학 대표이사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 경영 혁신과 매출 증가 노력으로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대중적인 여성 옷사이즈(66)를 세분화해 맞춤형 옷을 제공한 육육걸즈 박예나 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채정묵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시장경제의 침체, 인력난 심화, 고정비 증가 등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며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좀 더 큰 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새 판을 짜고 현장밀착형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를 이긴 숨은 주역들의 수상을 축하드린다.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저력으로 한국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이 원하는 정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향후에도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도내 3개사 제품 우수조달물품 추가 지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21년도 제1회 우수조달물품심사에서 도내 업체 ㈜비젼세라믹 등 3개사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도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40개사(53개 제품)이며, 이번에 지정된 부안 소재 (주)비젼세라믹(대표 김광문)의 '다기능 미장벽돌'은 기초물질, 기능성물질, 보조첨가제 물질 등을 계량·혼합해 단열성, 압축강도, 내마모성을 우수한 성능으로 강화시킨 제품이다.

완주 소재 티오캠(주)(대표 노창섭)의 '복합실란을 이용해 내약품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세라믹코팅제'는 침투성 무기나노소재, 불소실란 및 불소수지를 사용함으로써 도막이 치밀하고, 부착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내약품성이 우수한 침투성 방수도장 제품이다.

익산 소재 ㈜동원프라스틱(대표 김인식)의 '탐지기능과 이탈방지 기능이 우수한 폴리에틸렌 수도관'은 관에 부착된 전선을 커넥트로 연결해 관로의 위치를 용이하게 탐지하며, 압륜과 이탈방지 돌기 등을 추가해 관의 이탈방지와 수밀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이주현 청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등 적극행정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도민 맞춤형 '알기쉬운 결산정보' 제작·공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도민 맞춤형 알기쉬운 결산정보를 제작·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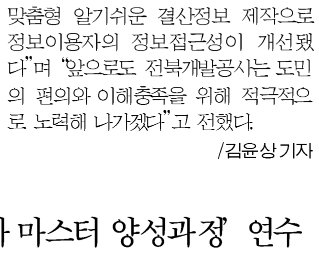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4월 2020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결산자료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회계용어와 복잡한 수치자료로 구성돼 있어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도민의 이해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쉬운 용어와 그림 등으로 표현한 도민 맞춤형 알기쉬운 결산정보를 제작했으며, 이를 공사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민 맞춤형 알기쉬운 결산정보 제작으로 정보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편의와 이해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은퇴설계전문가 마스터 양성과정' 연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전북은행 본점 연수원에서 WM(Wealth Management)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2021년 은퇴설계전문가 Master 양성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한국금융연수원과 연계한 이번 연수는 은퇴설계의 다양한 사례 연구 및 실습을 통해 은퇴설계전문가로서의 실무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은퇴준비 및 성공적 노후준비, 금융상품별 운용전략, 연금제도, 보장자산 구성, 절세전략, 부동산 유동화 전략, 종합사례실습 등을 중심으로 은퇴 설계전문가 배출을 위한 두 달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북은행 권오진 부행장은 "최근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은퇴 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생애설계 측면에서 은퇴생활 전반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종합적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층 더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최고 경쟁력의 명품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유산사무소, 주니어 레인저 4기 모집… 이달 30일까지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은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년 덕유산국립공원 주니어 레인저(4기)' 참여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니어 레인저는 다음달부터 활동하며, 주요 활동 내용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문화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관리 작업, ▲지역 속 문화 탐방, ▲덕유산국립공원 일원 환경 정화 활동 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덕유산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받아 이메일(덕유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박진(ddongfuzic@knp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바이오진흥원, 흑하랑 상추 유통·마케팅 전략 논의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진흥원)은 지난 11일 흑하랑 상추의 유통·마케팅 전략방안과 음료제품 리뉴얼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휴온스내추럴 계홍석 이사, 하이트진로(주) 상품개발팀 안상혁 부장(기술사), ㈜흙미루 위원길 이사, 지리산운봉상추 영농조합법인 성상호 대표 외 2명 및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조영철 박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흑하랑 상추 제품의 유통 및 마케팅 전략방안과 흑하랑 상추 음료제품 리뉴얼을 위한 개발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윤상기자